

■ 2026 새해설계 박병규 광산구청장

“주권자 뜻이 광산의 나침반…시민과 설계”

상생·혁신 민선 8기 가치…먼저 다가가는 행정
참여·연대·녹색 등 전환…지속가능 도시 도약



“2026년은 주권자의 뜻이 광산의 나침반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시민의 삶에서 변화를 증명하겠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주권자 중심 도시’라는 민선 8기의 철학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는 “광산은 위기의 순간마다 연대와 참여로 길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시민의 선택과 참여가 광산의 내일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이 제시한 2026년 광산의 방향은 △주권자 참여 강화 △촘촘한 돌봄 안전망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활 안전도시 △아이·청소년 성장환경 △문화·인문 도시 △녹색 전환 등 7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모두 시민의 삶과 일상에 서 체감되는 변화를 중심에 둔 설계다.

박 구청장은 ‘시민이 결정하는 도시’

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민선 8기 동안 시민 제안과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세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 참여 구조를 더욱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를 강화해 자치분권이 행정 전반에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행정은 앞서기보다 주권자가 걷는 길을 지지하는 역할에 충실했겠다”고 약속했다.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강조했다.

어르신의 끈기, 청년의 마음건강, 가족 돌봄 부담을 안은 청년층, 고립 위험에 놓인 주민까지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 가정의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주체를 연결하는 연대망을 강화해 ‘서로를 지탱하는 광산형 돌봄 구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광산구는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시민 참여를 통해

도출한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이 상생하는 구조, 청년에게 기회를 넓히는 일자리 모델, 지역 인재와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일자리는 생계이자 존엄의 문제”라며 “시민과 함께 설계한 일자리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생활 안전을 높이는 정책도 본격화된다. 반복되는 재난과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동시에 점검해, 물길·보행·야간 안전·산업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박 구청장은 “안전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도시 광산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아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서는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청소년이 마음 놓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미술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배움 생태계를 강화해 미래 세대가 꿈과 상상을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광산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투자라는 설명이다.

문화·인문 정책을 통해 도시의 품격도 끌어올린다.

박 구청장은 “시민의 삶을 깊게 하는 힘은 문화와 배움”이라며, 축제와 인문학, 음악과 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광산의 특성을 살려, 세계와 연결되는 열린 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녹색 전환도 빠질 수 없는 과제다. 광산구는 쓰레기

·

김죽과 재활용 실천을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고, 습지·하천·숲 등 지역의 생태 자산을 시민과 함께 지켜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계획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광산은 시민의 참여와 지혜로 위기를 넘어 성장해 온 도시”라며 “2026년에는 상생과 혁신의 가치로 시민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42만 광산 시민이 주권자로서 함께해 준다면 광산의 내일은 더 밝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호 기자 jhn415@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광주 북구 ‘장수 축하 선물’
올해 만 100세 어르신 대상

광주 북구가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면서 올해 만 100세가 되는 1926년생 어르신 20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고령사랑기금으로 조성된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장수 축하 선물은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 4종(△온수매트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 세트)에서 2종(△전기밥솥 △노인보행기)을 추가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노인복지과(062-410-8401)에 문의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는 충장로에서 깨끗한 간판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간판이 깔끔하게 교체된 충장로 상가 모습.

말했다.

현재 동구는 간판 유지관리, 신규 점포 입점 시 디자인 질서 유지를 하며 광주 대표 디자인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로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되는 광주의 대표 디자인 랜드마크로 거

듭나고 있다”며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하는 일은 상인의 자부심을 세우고 시민에게 다시 오고 싶은 거리를 선물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충장로 간판개선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곳을 상권에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무질서한 간판 바꾸니 충장로 도시경관 ‘활짝’

동구, 2020년부터 23억 투입 간판교체사업 추진
안전·가독성 중점…“디자인 랜드마크 자리매김”

광주 원도심의 상징인 충장로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의 간판을 도입하며 도시 경관에 뛰어난 변화를 가져왔다. 무질서하던 간판들이 정돈되자 거리 전반의 시각적 질이 높아졌고, 충장로는 개별 점포의 집합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 거리’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충장로 1~5가 간판개선 사업은 거리의 첫인상을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3억8800만원(국비 10억9800만원·시비 3억6500만원·구비 9억2500만원)을 투입해 충장로 1~5가에 이르는 1093m 전 구간을 하나의 거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상인들과

고심을 거듭했다.

다른 도시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상인과의 협장대화, 안전·가독성·거리경험 제시, 자율관리체계, 상권 콘텐츠 결합 등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

하지만 동구는 사업의 필요성과 홍보 효과에 대해 상인들과 수차례 만남을 갖고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시민과 상인들은 정돈된 간판들을 보고 ‘통일성 있다’, ‘보기가 편하다’ 등 호평을 내놓았다.

충장로 상인회 관계자는 “가게 간판을 업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깔끔히 정돈된 거리를 보니 잘 한 것 같다”며 “밤에 조명이 켜졌을 때 거리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졌다. 이번 사업으로 충장로다운 분위기가 새롭게 생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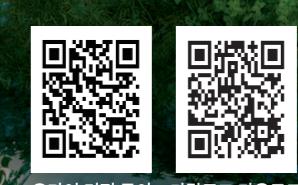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빛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토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완성



온라인 견적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몰 www.cart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